

일본 구연동화 활동의 성립과 전파과정 연구

김성연*
yoni1357@hot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삼대 구연동화가와 삼대 구연동화 연구회 |
| 2. 일본 구연동화 활동의 성립 | 4. 식민지 조선으로의 전파 |
| 3. 일본 구연동화 활동의 정착 | 5. 마치며 |
| 3.1 소년세계 강화부의 활동 양상 | |

主題語: 구연동화(Oral Performance/Japanese Storytelling), 일본 아동문화(Japanese children's culture), 한국 아동문학(Korea children's literature), 이와야 사자나미(Iwaya Sazanami), 구루시마 다케히코(Kurushima Takehiko)

1. 들어가며

일본의 구연동화 역사는 제국주의의 확대 양상과 함께 특수한 발달형태를 보인 일본의 독자적인 아동 문화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는 문자가 아닌 음성 언어로 이루어진 장르의 특성으로 인한 자료 수집 정리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 과정 연구 및 식민지 교육에 있어서 ‘동화’가 기능한 역할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발생하여 조선으로 전파된 구연동화의 활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²⁾ 이에 필자는 『소년세계(少年世界)』를 비롯한 각종 일본 아동

* 玖珠町久留島武彦研究所 所長

- 1) 최초의 구연동화사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内山憲尚(1972)의 『日本口演童話史』는 구연동화 조직의 전국망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지만, 전국의 대표적인 구연동화가를 都道府県 별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를 통해 각 구연동화가의 실제적인 활동 양상이나 구연동화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는 유명 구연동화가의 행적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글이나 회고담이 주를 이룬다. 上地ちづ子(1997)가 구연동화사를 ‘방법과 사상’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한 바 있으나, 많지 않은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한계가 있다.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大竹聖美(2002)나 조은숙(2006)에 의해 일본 아동 문학가들의 조선 구연동화 활동이 언급된 적이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과제로 남아 있었다.

잡지, 정기간행물,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아사히신문(韓日新聞)』,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발행된 신문(京城新聞 『每日申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등의 조사를 통해 일본 아동 문학가들의 조선 구연동화 활동 연보를 작성해 가는 중이며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巖谷라고도 표기, 이하 사자나미라고 씀)와 구루시마 다케히코(久留島武彦, 이하 다케히코라고 씀)를 중심으로 일본 구연동화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일본에 구연동화 활동이 발생하여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오토기쿠라부(お伽倶楽部)’와 ‘소년세계 강화부(少年世界講話部)’의 활동 양상 및 일본 삼대 구연동화가와 삼대 구연동화 연구회의 활동 양상을 통하여 일본 구연동화 활동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필자가 발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구연동화 활동이 식민지 조선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2. 일본 구연동화 활동의 성립

학교, 극장, 청년 회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화를 들려준 구연동화³⁾ 활동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사자나미다. 아동 문학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없었던 1895년(메이지28)에 창간된 『소년세계(少年世界)』의 편집장이었던 사자나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 작품을 일컫는 용어로 ‘오토기바나시(お伽噺)’라는 말을 사용했다. 무로마치시대의 오토기조시(お伽草子)라는 고전문학의 장르 이름에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의미를 새로이 부여한 것이었다. 『아카이 토리(赤い鳥)』(1918)를 통해 ‘동화’라는 용어가 보편화될 때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 작품을 일컫는 용어로는 오토기바나시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발행 초기의 『소년세계』에는 오토기바나시라는 말이 정형화되어 등장하지 않는다. 1899년(메이지32)부터 「전국 옛날이야기(諸国お伽噺)」를 연재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부터 오토기바나시가 정형화되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창간호부터 5년간의 『소년세계』를 살펴보면, 사자나미를 중심으로 한 아동 문예 작품은 매 회 한두 편 소개될 뿐이었으며, 사자나미는 아동 문예 작품 앞에 그 독자 대상이 되는

3)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위를 본고에서는 ‘구연동화’라고 표기하지만 일본에 구연동화 활동이 발생하여 보급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통일된 용어가 확립되지 않고 ‘오토기바나시(お伽噺)’ ‘이야기(お話)’ ‘동화(童話)’ 등의 말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었다. 구연동화를 일컫는 당시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読売新聞』과 『朝日新聞』에서 다케히코와 사자나미에 관한 기사를 수집하여 그 중에서 구연동화를 지칭하는 말을 정리해본 결과, 明治期와 大正期에는 ‘오토기바나시(お伽噺)’가 주로 사용되었고, 昭和 이후로는 ‘동화(童話)’가 보다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년(幼年)’ ‘유년부(幼年部)’ ‘소녀(少女)’와 같은 말을 표기함으로서 아동 문학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다. 창간 당시의 『소년세계』는 아동 문예 잡지라기보다는 근대적인 신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오토기바나시 작가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사자나미는, 1896년(메이지29), 교토의 한 소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의 부탁을 받아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연동화를 시도했다.⁴⁾ 이것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일본 최초의 구연동화 기록이 된다. 그 후 사자나미는 가큐슈인(學習院)에서 매달 한번 구연동화를 하게 되었다. 1902년(메이지35), 사자나미를 형과 같이 따르며 아동 문학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던 다케히코가 사자나미의 구연동화회에 따라 가게 되었다. 구연동화 활동을 처음으로 접한 다케히코는, 사자나미의 활동에 착안하여 유료 구연동화회를 기획하게 된다. 먼저, 오토기쿠라부(お伽俱樂部)라는 단체를 만들고 1903년(메이지36) 7월 15일 토요일, 요코하마(横浜)의 감리교파 교회에서 제1회 구연동화회를 개최하였다. 입장료는 5전(특등석 10전)으로 길거리에 선전 전단지를 붙여 아이들만을 불러 모았다. 구연동화회가 시작하자, 처음에 다케히코가 나와 이야기를 한 뒤, 기도쥬타로(木戸忠太郎)가 「백만년의 후지산」이라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으로 사자나미가 동화를 구연했다. 『소년세계』(제9권10호)를 통해 사자나미는, 오토기쿠라부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토기쿠라부가 전국 각지에 보급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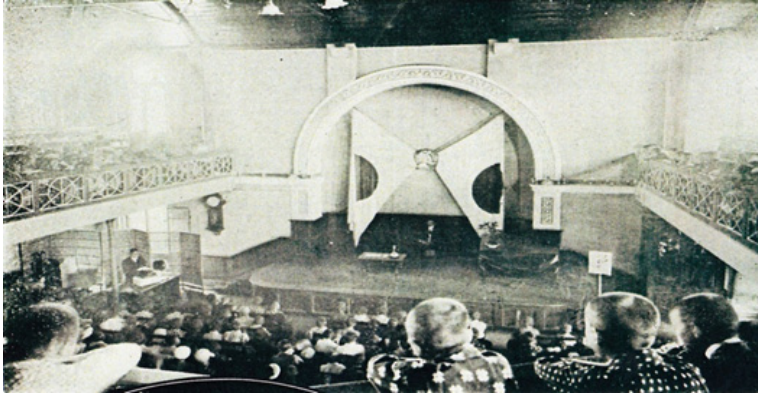
당시 다케히코는 요코하마 무역신문의 사회부 기자였다. 구연동화회가 있던 날, 가와카미 오토지로(川上音二郎, 신파극 배우, 이하 가와카미라고 씀)가 다케히코에게 자신의 공연 선전 기사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다. 아이들을 관객으로 한 이벤트가 극히 드물던 시절, 아이들로 가득 찬 구연동화회의 광경은 가와카미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듯하다. 가와카미는 다케히코와 사자나미를 만나 상의를 거듭한 끝에 전문 배우가 아이들 관객을 대상으로 연기하는 아동 연극(お伽芝居, 오토기 시바이)을 1903년(메이지36) 10월 3일, 일본에서 최초로 무대에 올렸다.

같은 해 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개최되던 구연동화회는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며 다케히코가 군에 종군함으로서 중지된다. 러일전쟁이 승리로 끝난 뒤 도쿄로 돌아온 다케히코는 1905년(메이지38) 11월, 군대에서 계획한 보다 체계적인 오토기쿠라부 구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야나기와라 요시미쓰(柳原義光, 귀족원 의원)를 총재로, 사자나미와 도기 텃테키(東儀鉄笛, 작곡가)를 고문(顧問)으로 하고 본인은 주사(主事)가 되어 ‘가정과 학교 사이에

4) 巖谷小波(1920)『我が五十年』東亜堂, p.295

5) 諸君！お伽倶楽部の出来たのを御存じですか？諸君も御馴染の尾上新兵衛が新たに横浜で開いた少年諸君の為の倶楽部です。諸君！私は此種の倶楽部が諸君の間に歓迎されて、横浜に止まらず東京にも京都にも大阪にも名古屋にも日本全国至る所に起る事を切に希望する所であります。

존재하는 소년 소녀의 사회교육기관'으로 정의한 오토기쿠라부라는 조직을 새롭게 설립했다.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의식과 함께 오토기쿠라부는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곧 그 재탄생을 알리는 구연동화회가 기획되었다.



〈사진 1〉 제5회 구연동화회의의 광경(『소년세계』제12권14호)

1906년(메이지39) 3월 17일, 도쿄 지요다쿠(千代田区)의 청년 회관에서 새롭게 탄생한 오토기쿠라부에 의한 제1회 구연동화회가 열렸다. 입장료는 어린이 10전, 어른 20전이였다. 사자나미, 다케히코, 기도 주타로 외에 아사미(朝海)소학교의 교장인 사사노 도요미(笹野豊美)가 출연하여 「사이좋은 형제(仲良き兄弟)」라는 동화를 구연했다. 청년 회관은 만원이었고 구연동화회는 성공했다고 기록되지만 당시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에게 돈을 받는 유료 공연에 출연한 사사노 교장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⁶⁾ 허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연동화 자체도 비교육적인 행위로 취급받아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구연동화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다케히코가 기획 연출한 구연동화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연동화뿐만 아니라 아동 연극, 동요, 대담(對談), 오토기교겐(お伽狂言), 비파연주, 마술, 접시돌리기 등 회를 거듭할수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종합공연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신문기사(『読売新聞』 11907年4月21日, 朝刊3面)를 통해, 1907년(메이지40) 4월 20일에 열린 제12회 구연동화회의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 시에 시작하여 다케히코의 「러시아 이야기(ロシア物語)」 구연이 있는 뒤, 당일 취소가 되었으나 다카미네 지쿠후(高峰築風)의 비파(琵琶)연주와 사자나미의 구연동화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복숭아에서 태어난 모모타로(桃から生まれた桃太郎)」

6) 笹野生(1936)「お話の元祖」『いぬはりこ』家の教育社, p.22

라고 하는 다케히코 각본에 의한 아동 연극이 있는 뒤, 마지막으로 오토기 사이류이치(お伽斎柳一)의 마술이 있고 오후 4시 반에 막을 내렸다.

오토기쿠라부 주최로 정기적으로 개최된 구연동화회에는 기시베 후쿠오(岸邊福雄), 아마노 기지히코(天野雉彦), 오이 레이코(大井冷子) 등의 구연동화가들이 출현하여 일본 구연동화의 기초가 만들어졌으며⁷⁾ 이 행사 자체가 새로운 문화 주체들을 예비하고 형성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⁸⁾ 거의 매회 초만원의 성황을 이룬 구연동화회는 매달 한 번씩 개최되어 7년간 이어졌다. 일본 최초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근대적 공연 연예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연동화회는 점차 구연동화의 대중화를 향해 활동의 영역을 넓혀 가게 된다.

3. 일본 구연동화 활동의 정착

3.1 소년세계 강화부의 활동 양상

오토기쿠라부가 결성된 지 6개월 후인 1906년(메이지39) 9월, 사자나미는 다케히코를 하쿠분칸(博文館)에 채용하여 애독자를 위해 구연동화회를 개최하는 ‘소년세계 강화부(少年世界講話部)’를 설치하였다. 다케히코가 담당 주임이 되어 ‘소년세계 환등대(少年世界幻灯隊)’라고 불렀다. 『소년세계』(제12권16호)를 통해, “소년세계 환등대는 어디든지 간다. 여러분의 집으로 오라면 기꺼이 여러분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집 한 집 여러분의 집을 찾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우선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여러분의 학교로 찾아가 선생님께 부탁해서 개최하기로 했다.”⁹⁾ “비용은 물론 소년세계가 부담하여 결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학교에 조금의 피해도 끼치지 않겠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¹⁰⁾라는 말로 아동문학 보급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곧 전국에서 환등대의 방문을 부탁하는 애독자들의 신청이 이어졌다.

7) 富田博之(1976)『日本児童演劇史』東京書籍株式会社, p.57

8) 배선애(2010)「1920년대 준극장기관과 주체 형성의 양상-소년회 활동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325

9) 少年世界幻灯隊は何処へでも行く。諸君の家へ来いとのことなれば、随分諸君の家にも行かう。併し左様一軒々々諸君の家へ行かれるものではないから、先づ諸君が毎日通はれる所の諸君の学校へ行つて、先生に願つて開會することにした。

10) 費用は勿論少年世界が負担して、決して諸君や諸君の学校へは一文たりとも御迷惑はかけない。我々は唯だ諸君に見ゆることが出来れば、それで目的は達せられたのである

소년세계 강화부의 지방 구연동화 활동은 다케히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사자나미는 자신이 참가 가능한 일정에 동행을 하거나 합류하는 방식으로 함께했다.

1906년(메이지39) 10월 20일, 도쿄 우시고메쿠(牛込区, 현재의 신주쿠지역)의 쓰쿠시(津久士)소학교에서 열린 제1회 소년세계 환등대 연습(1,500명)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 우시고메의 이치가야(市ヶ谷)소학교에서 제2회의 연습(2,000명)을 실시했다.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알 수 있듯이, 먼저 가까운 도쿄에서 구연동화의 실전 경험을 쌓은 뒤 애독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 순회공연을 실시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다.

소년세계 강화부가 설립되고 1년째 되는 1906년(메이지39)은 도호쿠(東北)지방을 순회하며 14,100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소년세계 환등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초기에는, 환등기를 사용하여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년세계』편집부의 광경이나 기자의 얼굴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잡지를 선전하고, 사진을 통해 세계 일주를 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요코하마에서 기차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여 하와이를 건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지나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귀국하는 여정이었는데, 세계 각국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세계의 정세를 설명했다. 동물원과 장애물 달리기 활동사진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환등기가 자주 고장을 일으켰다. 환등기를 사용한 활동 기록은 1907년(메이지40) 7월에 실시한 도호쿠(東北)지방 순회를 끝으로 찾아볼 수 없으며 점차 활동의 형태는 동화의 구연 한가지만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환등기가 고장을 일으키면, “환등은 또 볼 수도 있으니 부디 구연동화를 해 주세요.”¹¹⁾라고 부탁하는 이가 많았다는 기록으로 통해, ‘구연동화’라는 새로운 문화 형태가 환등기보다 더 흥미를 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활동 초기, 같은 단상에 오르면서 다케히코는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구연하고 사자나미는 매번 다른 이야기를 구연했다. 그런 식으로 서로의 구연을 관찰하여 비평하며 구연법의 연구에 주력했던 것이다. 구연동화의 소재로는 일본의 옛날이야기나 창작 동화, 번역 동화가 주로 사용되었다.

2년째 되는 해는 주고쿠(山陰山陽地方)부터 규슈(九州)지방을 순회했다. 3년째 되는 해는 호쿠리쿠(北陸)지방을, 4년째 되는 해는 긴키(近畿)지방을 순회했다. 소년세계 강화부의 활동은 1910년(메이지43)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자나미와 다케히코가 다녀간 지역에는 오토기쿠라부의 지부(支部)가 생겨났다. 요코하마(横浜), 고후(甲府),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고베(神戸), 오카야마(岡山), 히로시마(広島), 오이타(大分) 등 일본 전국 각지에 오토기쿠라부의 지부 또는 유사 단체가 생겨났다. 오토기쿠라부 지부 간에 작용한 밀접한 유대와 협력

11) 「幻灯はまた見る事もあるので、是非お伽話をしてください」久留島武彦(1907)「お伽舌揮毛」『少年世界』第13巻6号, 博文館, p.99

관계를 토대로 구연동화회는 학교 및 각 지역 단체 등에서 개최되었다.

다케히코는 1911년(메이지44), 자비를 털어 미국 시찰에 나선 적이 있다. 그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구연동화의 명사라고 소개 받은 닥터 와이치라는 미국인을 뉴욕에서 만난 일화가 있다. 현재 많게는 2, 3백 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경험은 600명 정도였다는 와이치의 말을 들은 다케히코는, 작년에 구연동화에 모인 아이들 수가 약 23만 명이었고, 한번에 3, 4천명의 아이들에게 구연동화를 한 적도 있다고 대답하여 와이치를 놀라게 하였다.¹²⁾ 일본의 구연동화 역사가,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특수한 발달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1914년(다이쇼3)의 일 년 중에 296일을 구연동화를 위해 강단에 섰고, 그 중 8할이 지방 공연이었다는 다케히코의 기록을 통해서도, 1906년(메이지39)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연동화 활동이 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오토기쿠라부와 소년세계 강화부의 성공은 ‘구연동화’라는 새로운 아동문화 형태를 일본 전국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각지에는 구연동화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구연동화회를 주최하는 학교나 지역 단체가 늘어났다. 구연동화 활동을 사회 교육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전개한 이들과 만담(落語)과 같은 예술 활동으로 전개한 이들이 출몰했다. 구연동화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제법 구루시마 같아졌네.’¹³⁾라는 말로 칭찬을 하고, 구연동화의 중개인이자 등장해서 사기 사건을 벌이는 등¹⁴⁾ 구연동화의 유행은 일종의 사회 현상까지 불러 일으켰다. 가쓰스이(活水)여학교 교감이었던 후지타 시즈오(藤田静雄)는, 구연동화가가 “마치 홍수처럼 배출”¹⁵⁾되었던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연동화의 성공 요인은, ①사자나미와 다케히코와 같은 저명한 전문 구연동화가의 존재, ②체계적인 전국망을 구축하여 구연동화 활동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오토기쿠라부의 존재, ③ ‘구연’이라는 표현 행위가 가지는 감화력과 매력, ④구연동화를 지지한 성인층이 두터웠다는 점¹⁶⁾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 『お伽俱樂部』(1912)第2巻第3号 お伽俱樂部出版部, p.28

13) 「だいぶ久留島バリになったね」『いぬはりこ』(1936)家の教育社, p.113

14) 塚本長蔵(1936)「巨匠の心遣い」『いぬはりこ』家の教育社, p.112

15) 「童話の実演家も殆ど洪水の如く輩出したが、どうも内容が低級であつたり、魅力が希薄であつたり、品位や迫力が足らなかつたりして、なかなかこの人こそといふ実演家はまだ極めて少ない。この点に於て吾が久留島武彦先生こそは吾々教育者の要求に十二分の満足を与へて下さる実演家として満腔の感謝を捧げるものである。」『いぬはりこ』(1936)家の教育社, p.87

16) 활동 초기부터 교원이나 지역 단체의 회원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연동화회가 개최되었으나, 다케히코가 유치원을 개원하면서 구연동화 연구회(回字会)와 어머니회(母の会)를 조직한 1910년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연동화회가 병행되었다.

3.2 일본 삼대 구연동화가와 삼대 구연동화 연구회

1911년(메이지44) 9월 3일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사자나미, 다케히코, 기시베 후쿠오(岸邊福雄 이하 후쿠오라고 씀)가 일본 오토기바나시의 삼대가(三大家)로 불리고 있음을 보도했다. 이 기사를 통해 구연동화 활동이 시작되고 5년도 지나지 않아 이 세 명이 일본 삼대 구연동화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2년(다이쇼11) 5월, 구연동화가를 중심으로 한 일본 동화협회(日本童話協會)가 설립되었을 때도 이 세 명이 고문(顧問)을 맡았다. 사자나미는 일본에서 최초로 구연동화를 실시한 구연동화의 창시자이며 다케히코는 구연동화라는 새로운 아동문화 형태를 일본 사회에 정착시킨 보급자이다. 그리고 후쿠오는 이상적인 구연동화가로 인정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이자 아동 문학가이며 편집장이자 저널리스트이며 또한 하이진(俳人)으로 유명했던 사자나미는, 구연동화 활동을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향유하며 평생 생활의 일부로 전개하였다. 1915년(다이쇼4)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사자나미를 “오늘날 어린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토기바나시의 원조, 일본에서 가장 친숙한 할아버지”¹⁷⁾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자나미는 1933년(쇼와8) 6월, 류고쿠(中国)지방 구연동화여행 중 히로시마(広島)에서 장폐색증으로 쓰러져 6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병으로 쓰러지는 순간까지 ‘이야기 할아버지’(お伽噺のお爺さん)로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구연했다. 이러한 사자나미의 존재는, 아이들을 위해 ‘글로 쓰인 이야기’이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던 ‘오토기바나시(お伽噺)’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자나미는 『동화를 들려주는 방법(童話の聞かせ方)』(1931)을 통해 “동화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대상이 아동이므로 비교육적이어서는 안 된다”¹⁸⁾고 하며 구연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연동화가가 완전히 동심(童心)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자나미의 교육관이나 아동문학관을 정리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모모타로주의 교육(桃太郎主義の教育)』(1915)이 있다. 적극성, 진취성, 낙천성을 내포한 ‘모모타로(桃太郎)’를 가장 이상적인 아동 상으로 생각한데서 나온 ‘모모타로주의 교육’은, 다케히코나 후쿠오도 유치원 교육에 도입하여 아동교육의 지향점으로 삼게 된다. 예술이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자나미는, 구연동화연구회를 조직하거나 구연동화가를 육성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17) 「今時の子供で知らない者はいない、お伽噺の元祖、日本一の懐かしい叔父さん」『読売新聞』1915年1月21日

18) 童話は教育本位のものではなく、対象が児童であるから、非教育的であってはならぬ

일본 삼대 구연동화가의 한사람으로 평가받는 후쿠오는, 다케히코에 의해 일본 최초의 유료 구연동화회가 열린 1903년(다이쇼4)의 10월, 도쿄 우시고메(牛込)에 있는 자택에 동양유치원(東洋幼稚園)을 개원했다. 자신의 아이 10명에 원아 3명을 받아 조그맣게 시작한 유치원이었다. 후쿠오는 거기서 원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연동화를 시작했다. 유치원을 경영하며 고정된 청중을 확보하고 있었던 후쿠오는, 스스로 구연동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개척해 나가며 구연동화를 통해 일본에 아동문학을 보급시키려고 노력했던 사자나미와 다케히코와는 출발점과 목적의식이 달랐다. 동양유치원에서는 스루스미호(するすみ号)라는 마차로 아이들을 교외로 데리고 나가는 등, 원생들을 모모타로와 같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자 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천 번 이상 반복해서 구연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 후쿠오는 원생들에게 주로 일본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특히 모모타로 이야기를 좋아해서 67세까지 모모타로 이야기를 2천 번 이상 구연했다고 전해진다.¹⁹⁾ 오토기쿠라부의 활약에 의해 구연동화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아져가고 그에 따라 후쿠오도 구연동화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1909년(메이지42)에는 일본 최초의 구연동화 연구서인 『구연동화방법의 이론과 실제(お伽噺仕方の理論と実際)』를 발표했다. 구연동화가로서 유명세를 타게 된 후쿠오의 유치원에는 점점 원생들이 늘어나 1910년(메이지43) 4월에는 도쿄 간다(神田)에 유치원을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1916년(다이쇼5) 10월에는 원생이 80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1921년(다이쇼10) 5월 17일에는 경성일보사의 초빙을 받아 조선에서도 구연동화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방공연 횟수는 그리 많지 않았고 동양유치원을 중심으로 구연동화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자나미나 후쿠오와 달리 다케히코에게는 ‘구연동화가’ 외에 ‘웅변가’라는 수식이 붙는다.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하는 웅변술적인 다케히코의 화법은,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듣는 사람의 가슴에 인상깊이 남긴다.”²⁰⁾고 했다. 타고난 기질에 간세이가쿠인(関西学院)시절에 경험한 가두연설(街頭演説)의 영향, 군대 생활의 영향 등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다케히코에게 웅변가라는 수식어가 붙은 데에는 구연동화 활동과 함께 통속강연(通俗講演)의 길을 개척한 다케히코의 활동 양상에 그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가 없던 메이지 시절의 사람들은, 강연을 통해 신지식을 얻으려고 갈구했다. 잦은 지방 강연을 통해 그러한 청중의 갈망을 체득한 다케히코는, 정보 전달 수단을 겸한 사회 교육 강연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1916년(다이쇼5)에 출판한 『통속웅변술(通俗雄弁

19) 上笙一郎・山崎朋子(1994)『日本の幼稚園』筑摩書房, p.153

20) 「大きな声でハッキリと話す雄弁術的な武彦の話ぶりは一語一語をハッキリと聴く人の胸に印象づけ」内山憲尚(1972)『日本口演童話史』文化書房博文社, p.14

術』²¹⁾을 통해 통속 강연자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주장했다.

동화를 통해 정식 교육을 실천하려고 한 다케히코는 구연동화 활동을 자기 인격 수양으로 이어지는 계몽적 교육 활동으로 인식했다. 대표적인 창작 동화 『다섯 가지 색깔의 영혼(五色の魂)』(1913)을 통해서도 수정(水晶)처럼 영혼을 깨끗이 닦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동화는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의 영혼이 직접 맞닿는 것이라고 해석한 다케히코는, 서툴러도 좋으니 어머니나 아이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구연동화가가 되어 아이들에게 직접 동화를 들려주기를 당부했다. 다케히코는 사자나미와 마찬가지로 한평생 전국을 돌아다니며 구연동화 활동을 이어나갔고 조선에도 최다 방문 기록을 남기고 있다.²²⁾

후쿠오가 동양유치원을 신설한 것과 같은 해인 1910년(메이지43) 5월 5일, 다케히코도 도쿄 아오야마(青山)에 유치원을 개원했다. ‘오토기쿠라부 부속 사립 사와라미(早蕨)유치원’이라고 이름 짓고, ‘아동 연구 기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개원과 동시에 일본 최초의 구연동화 연구회인 가이지카이(回字会)²³⁾를 설립하였다. 매달 한 번이나 두 번 사와라미유치원 또는 다케히코의 자택에서 모임이 열렸다. 매회 20명 이상의 회원이 모였으며 구연동화의 보급과 함께 점차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회원은 60명을 넘었다.

1915년(다이쇼4), 가이지카이의 회원인 시모이 하루키치(下位春吉)와 구즈하라 시게루(葛原しげる)에 의해 오쓰카강화회(大塚講話会)가 조직되었다. 오쓰카강화회는 도쿄고등사범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되었다. 그 설립 취지를 보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화법의 연구이며, 그것은 실제 경험을 통해 비로소 체득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회원 각자의 정신 수양 또한 구연의 주된 목적임을 밝히며, 설립 후 제1회 구연동화회에는 다케히코를 게스트로 초대했다. 회원의 대부분이 반드시 가이지카이에 출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오쓰카강화회가 다케히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회원들은 매주 한번, 도쿄고등사범학교 부속 소학교를 비롯한 도쿄 내의 소학교, 유치원 및 각종 아동 시설을 방문하여 구연동화 활동을 펼쳤다. 오쓰카강화회를 선두로 하여 전국의 많은 사범학교에 구연동화 연구회가 설립되어 동화, 화법, 아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1924년(다이쇼13), 후쿠오를 중심으로 한 난난카이(喃喃会)가 조직되었다. 스즈키

21) 이 책을 통해 다케히코는 미국에서 시찰한 음성이나 몸짓을 이용한 구연의 상승효과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다.

22)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총 9번 구연동화를 위해 조선을 방문했다.

23) 다케히코가 이름을 지은 ‘回字’란, 입 속에 입이 있고 입 밖에 입이 있다는 뜻으로, 바깥 입은 일반적인 사람의 입이고 안의 입은 정신을 충실히 한 소리라는 뜻으로, 다케히코가 지향한 인격 수양의 중요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도쿠사부로(鈴木篤三郎), 노세 데쓰(能勢哲), 미타니 시키오(水谷式夫), 가와노 게이우(川野圭宇) 등이 창립 멤버가 되었다. 가이지카이를 겸해서 출석하는 회원도 많았고 1927년(쇼와13)에는 가이지카이와 함께 동화계의 이대 세력(二大勢力)이라 불리며 4, 50명의 회원을 자랑했으나²⁴⁾ 이후 점차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 수는 가이지카이가 훨씬 많았다고 한다.²⁵⁾

이상에서 살펴본 가이지카이(回字会), 오쓰카강화회(大塚講話会), 난난카이(喃喃会)를 일본 삼대 구연동화 연구회라고 한다. 가이지카이로부터 시작된 구연동화 연구회의 흐름은 전국 동화인 협회(全国童話人協会)라는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927년(쇼와2), 가이지카이는 조직의 강화를 꾀했다. 그 결과, 아동문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강연이나 화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모여들었다.²⁶⁾ 화술 연구회의 성격을 띠며 회원 수도 증가하였다. 가이지카이는 일본 구연동화계의 주축이 되어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점차 그들의 활동 영역을 식민지로 넓혀 나갔다.

4. 식민지 조선으로의 전파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있었던 일본 아동문학가의 구연동화 활동은 1913년(다이쇼2)10월, 만선구연여행(滿鮮口演旅行)에 나선 사자나미에 의해 최초로 실시되었다. 1913년(다이쇼2) 9월 29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만주와 조선 각지를 여행한 사자나미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조선에 머물며 하루 평균 2회의 구연동화를 실시했다. 시찰 겸 관광 목적이 주가 되었으며 조선에서의 첫 구연동화 체험에 대해서는 일본어가 통했다는 점에 흡족해하는 정도로 그쳤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15년(다이쇼4) 10월 8일, 문부성(文部省)의 촉탁을 받아 동양협회(東洋協會)주최로 열리는 통속강연회(通俗講演會)에 출석하기 위해 다케히코가 경성을 방문했다. 이 방문에는 일본 아동들에게 식민지의 상황을 보여줄 환동 영화를 만들 재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당시 경성에는 ‘시정 5년 기념 조선 물산 공진회(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가 개최되고 있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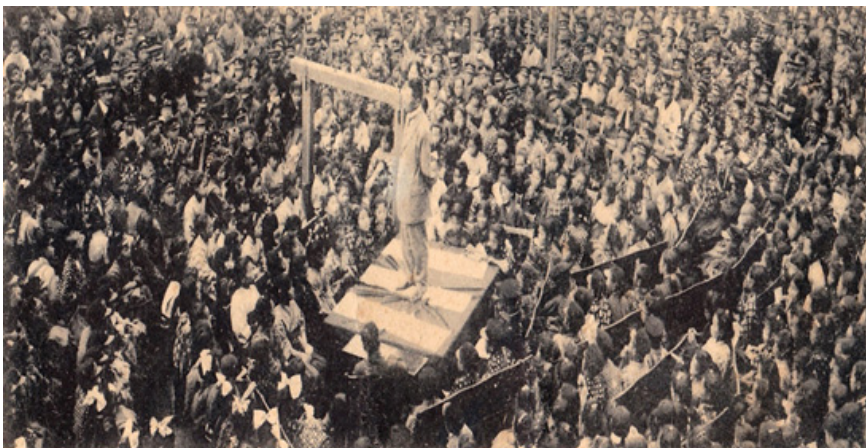
24) 『京城日報』1927년12월13일

25) 安倍季雄(1963)『童話教育』第12卷9号 日本童話協会, p.10

26) 사업가인 시미즈 다카시(清水たかし)는 “久留島先生によって体得した話術と座談は、実業方面に活動する吾人の外交上取引上に及ぼす利益こそ莫大にして、先生こそ商売繁盛の福の神とこそ崇め奉る”고 쓰고 있으며, 의사가 본업인 스즈키 도쿠사부로(鈴木篤三郎)는, 다케히코의 영향으로 70세가 넘을 때 까지 동화와 하루도 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어린이당(子供党)이 된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있다.『いぬはりこ』(1936), p.77

와 매일신보사(毎日申報社)의 공동 주최로 가정박람회(家庭博覽會)가 열리고 있었다. 이 박람회에는 사자나미가 고안했다는 ‘미끄럼틀(すべり山)’과 ‘둥둥 북(でんでん太鼓)’이라는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²⁷⁾ 박람회를 구경하고 있던 다케히코를 발견한 관계자가 구연동화회를 제안했고 다케히코가 흔쾌히 응하면서 예정에 없던 구연동화회가 열리게 되었다.

1915년(다이쇼4) 10월 9일 오후 7시, 경성일보사의 감독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소개를 받아 단상에 오른 다케히코는 「인간과 수명(人間と寿命)」이라는 동화를 일본어로 구연했다. 구연동화회는 성황리에 끝이 났다. 그러자 경성일보사는 다음날부터 이를 연달아 다케히코의 구연동화회를 개최한다는 광고를 실었다. 10월 10일 오후 4시부터 다케히코는 「노기 대장(乃木大將)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구연했다. 11일은 비가 내려서 구연동화회가 취소되었다. 12일, 다케히코의 세 번째 구연동화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가정박람회의 뒤뜰에는 다섯 개의 소학교(南大門, 日の出, 鐘路, 桜井, 元町)에서 2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번에도 다케히코는 「노기 대장(乃木大將)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구연했다. 경성일보는, “구루시마선생님의 저력 있는 목소리가 구석구석까지 가 닿아 한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었던 경성 역사상 처음 있는 어린이 모임이었다.”²⁸⁾ 고 보도했다. 아래의 〈사진 2〉는 이 날의 구연동화회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 2〉 경성 구연동화회의 광경 (『경성일보』1915년10월13일)

27) 『京城日報』(1915년9월2일)에는「すべり山にでんでん太鼓—巖谷小波伯父さんの新發明」라는 기사와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다.

28) 「久留島先生の底力のある声は隅から隅まで至り一人も聞き洩すことなく京城未曾有の子供会であった」『京城日報』1915년10월13일

2천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작은 단상에 서서 구연동화를 하고 있는 다케히코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다음 시찰 목적지인 군산(10월 14일과 15일, 군산소학교)과 목포(10월 16일, 목포소학교)에서도 다케히코의 구연동화회가 개최되었다. 이 조선 구연동화 활동이 계기가 되어 다케히코의 권유를 받은 다케히코의 제자, 오이 레이코(大井冷光, 1917)를 선두로 가이지카이(回字会)회원들이 줄지어 조선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다케히코의 가장 뛰어난 세 제자 중 한 사람²⁹⁾이라 불리는 사타 시코(佐田至弘)는, 조선에 건너와 1918년(다이쇼7)에 ‘조선아동협회(朝鮮兒童協會)’와 ‘동심사(童心社)’를 설립했다.³⁰⁾ 또한 다케히코를 고문(顧問)으로 가이지카이 조선지부를 설립하고 1930년대까지 일본 각지의 가이지카이 회원들을 조선에 초빙하여 구연동화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에서의 사타 시코의 행보에 관해서는, 조선아동협회의 주최로 일 년에 두 번, 봄가을에 ‘아동애호 데이(兒童愛護デー)’행사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1928년(쇼와3)에 이르러 그 행사가 연중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과, JODK 경성방송국에서 동화 방송이 시작된 것은 1927년(쇼와2) 9월 20일부터인데 그 첫 회에 출연하여 동화를 구연한 이가 사타 시코였다는 사실 등, 신문 기사를 통해 단편적인 정황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1915년(다이쇼4) 10월에 이어 1917년(다이쇼6) 11월에 다케히코의 구연동화회를 개최한 경성일보사는 1918년(다이쇼7)부터 ‘경일동화강연회(京日お伽講演會)’라는 이름으로 구연동화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1921년(다이쇼10) 12월 14일에는 경성일보사내에 ‘경일어린이 모임(京日コドモ会)’을 조직하여 경성을 중심으로 지방 순회 활동을 실시하였다.³¹⁾ ‘경일어린이모임’의 주최로 구연동화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던 1922년(다이쇼11) 5월에는 소설가이자 아동잡지『킨노후네(金の船)』의 동화 집필을 담당하고 있던 오키노 이와사부로(沖野岩三郎)가 조선을 방문했다.³²⁾

이와 같은 움직임과 연동하여 1922년(다이쇼11)에 이르러 조선인에 의한 최초의 구연동화

29) 安倍季雄(1960)는 小池長, 佐田至弘, 石澤含笑를 「久留島門下の三羽鳥」라고 하였으며 内山憲尚(1972)는 小池長, 田村宗順, 長沼依山를 「久留島の三羽鳥」라고 했다. 주관적인 견해의 차이일수도 있지만 安倍는 明治, 大正期인 구연동화사의 초기를, 内山는 昭和이후의 상황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0) 1928年5月7日の『京城日報』에는, 朝鮮兒童協會, 母の会主事인 佐田至弘가 童心社十周年을 기념하기 위해 久留島武彦과 安倍季雄를 초빙하여 謝恩會를 개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를 통해 朝鮮兒童協會 童心社가 1918년에 설립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31) 京日コドモ会の 구연동화 활동은 1939년까지 이어지는데 八島柳堂, 矢橋小葩, 吉田楚峰, 吉原靜光가 중심 멤버로 활약하였다.

32) 沖野岩三郎가 『金の船』(後『金の星』)주최로 약 3개월 간 이루어진 滿鮮口演旅行을 통해 총 107회의 강연으로 44,000명의 청중을 동원했다고 『金の船』는 전하고 있으나, 잡지 선전 목적이 강했던 탓인지 당시의 각 신문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큰 화제를 모으지는 못한 것 같다. 1922년 5월 29일, 沖野岩三郎는 경성일보사의 후원과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개최된 ‘문예강연회’에서 ‘가정과 문예’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회가 열렸다.³³⁾ 그 이듬해 3월에는 방정환이 발행을 주도한 월간 아동잡지 『어린이』가 출판되었다. 그리고 『어린이』가 출판된 지 3개월 뒤인 1923년(다이쇼12) 6월, 사자나미가 10년 만에 조선을 찾았다. 사자나미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여 구연동화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일본 아동문학가의 방문으로는 최초(1913)이자 마지막(1930)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23년(다이쇼12)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 ‘이와야사자나미선생 전선순회구연동화회(巖谷小波先生全鮮巡回お伽講演会)’는 20일이라는 단기간 안에 총 60회의 구연동화회를 개최하여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청중을 동원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자나미의 구연동화회를 계기로 1923년(다이쇼12) 9월, 경성에 ‘조선동화보급회(朝鮮童話普及会)’가 설립된 사실이다. 조선 총독부의 나가노(長野)학무국장이 고문(顧問)을 맡고, 경성 오키타치(黄金町) 2-95번지에 본부가 설치되었다. ‘조선동화보급회’는 기관지를 겸한 아동잡지 『오토기갯포(お伽月報)』를 매달 발간할 계획과, 구연동화회를 육성하고 조선 아동에게 동화, 동요, 무용을 보급하며, 아동애호를 장려하는 한편 아동도서관 설립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방침이 『경성일보』를 통해 발표된 것은, 1924년(다이쇼13) 2월 24일의 일이었다.³⁴⁾

5. 마치며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구연동화 활동이 발생하여 성립, 정착된 뒤, 식민지 조선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1기는 1896년(메이지29)부터 1903년(메이지36)까지로 사자나미가 시작한 구연동화 활동에 착안하여 다케히코가 일본 최초의 유료 구연동화회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구연동화’라는 문화 형태의 대중화 가능성이 싹튼 시기이다. 제 2기는 1906년(메이지39)부터 1910년(메이지43)까지로 오토기쿠라부 주최로 정기 유료 구연동화회가 개최되는 동시에, 하쿠분칸(博文館)의 소년세계 강화부를 통해 지방 순회 활동을 개척하며, 전국 각지에 오토기쿠라부의 지부를

33) 조은숙(2006)에 의하면 1922년 4월 15일에 인천 엠윌 청년회 문학부에서 동화회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9월 4일에는 천도교 소년회에서 방정환의 동화회가 개최되었다.

34) 「朝鮮に於ける内鮮兒童の幸福を希ひ從來の智育に編したる教育の弊を補ふために情操教育の必要を主張し内鮮兒童を融和せしむる目的を以て今回長野學務局長を顧問とし朝鮮童話普及会が設立された。会の仕事としては童話の普及の外朝鮮人の童話口演会を育成して鮮童に童謡舞踊の普及を図り、一方には兒童愛護の奨励やお伽図書館設立の抱負も有し」『京城日報』1924年2月24日

설립해 전국망을 구축하여 구연동화 활동을 성립, 정착시킨 시기이다. 제 3기는 1911년(메이지 44)부터 1917년(다이쇼6)까지로 가이지카이(回字会)를 중심으로 구연동화 연구회가 활발하게 조직되어 구연동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연구 서적 및 전문 구연동화가가 다수 배출된 시기이다. 제 4기는 1918년(다이쇼7)부터 1924년(다이쇼13)까지로 일본 사회에 대중문화로 정착한 구연동화 활동이 식민지로 전파된 시기이다. 조선뿐만 아니라 대만, 만주 등지로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조선아동협회(朝鮮兒童協會)’와 ‘동심사(童心社)’가 설립된 1918년(다이쇼7)부터 ‘조선동화보급회(朝鮮童話普及會)’가 설립된 1924년(다이쇼13)까지를 이 시기로 설정하였다.

조은숙(2006, p.232)은 1920-40년까지 『동아일보』에 게재된 조선인에 의한 ‘동화회(童話會)’ 관련 기사 건수를 그래프로 정리한 바 있는데, 그 통계를 보면 1922년(다이쇼11) 당시 1건에 불과했던 동화회 관련 기사가 1923년(다이쇼12)에서 1924년(다이쇼13)에는 연간 5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1925년(다이쇼14)에는 26건으로 급증하게 되며 1927년(쇼와2)에는 65건이 되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건너간 아동 문학가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조선 총독부의 구연동화회 권장으로 이어져, 그 결과 1924년(다이쇼13) 이후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동화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일련의 현상과 맞물려 있다. 조선인에 의한 동화회가, 소년회나 아동잡지의 전국 배급망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상호 관계가 아동문학을 보급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이기훈(2002), 조은숙(2006)의 주장을 상기해 볼 때, 한국 아동문학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화회가, 일본에서 전파된 ‘구연동화회(口演童話會)’라는 제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이기훈(2002) 「1920년대 어린이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제연구』 역사문제연구소
 이재철(1978)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오오타케 키요미(2002) 「근대 한일 아동문화 교육 관계사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선애(2010) 「1920년대 준극장기관과 주체 형성의 상상-소년회 활동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서동수(2008) 「아동의 발견과 ‘식민지 국민’의 기획」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년 제2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정인섭(1975) 『색동회어린이운동사』 학원사
 조은숙(2006) 「일제강점기 동화회 연구-공동체적 독서에서 독서의 공동체로-」 『민족문화연구』 제4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安倍季雄(1960) 「回字会の思出」 『童話教育』 제12卷9号 日本童話協會

- 巖谷小波(1920)『我が五十年』東亜堂
 巖谷小波(1923)『再遊土産朝鮮館』『文芸俱樂部』博文館
 巖谷小波、久留島武彦、若松賤子(1983)『日本キリスト教児童文学全集』教文館
 巖谷季雄(1931)『童話の聞かせ方』賢文館
 巖谷大四(1974)『波の登音』新潮社
 内山憲尚(1972)『日本口演童話史』文化書房博文社
 生田葵(1939)『お話の久留島先生』相模書房
 姜東鎮(1979)『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東京大学出版会
 上笙一郎・山崎朋子(1994)『日本の幼稚園』筑摩書房
 上地ちづ子(1997)『口演童話の方法と思想』『児童文学の思想史・社会史』東京書籍株式会社
 岸邊福雄(1909)『お伽噺仕方の理論と實際』明治の家庭社
 金成妍(2004)『朝鮮における近代児童文学の始まり—朝鮮児童文学と巖谷小波(1)』『九大日文』4号 九州大学日本語学会
 金成妍(2010)『越境する文学：朝鮮児童文学の生成と日本児童文学者による口演童話活動』比較社会文化叢書16, 花書院
 久留島武彦(1928)『童話術講話』日本童話協会出版部
 久留島武彦(1933)『童話の大衆化』『子供世紀』大阪児童愛護連盟
 富田博之(1976)『日本児童演劇史』東京書籍株式会社
 松美佐雄(1922)『巖谷、久留島、岸邊三氏の話方について』『童話研究』9月号 日本童話協会

논문투고일 : 2015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4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4월 20일

〈要旨〉

일본 구연동화 활동의 성립과 전파과정 연구

일본의 구연동화 역사는 제국주의의 확대 양상과 함께 특수한 발달형태를 보인 일본의 독자적인 아동문화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자가 아닌 음성언어로 이루어진 장르의 특성으로 인한 자료 수집 정리의 어려움에 기인하다. 본 연구는 일본에 구연동화활동이 성립,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검토하고 그 양상을 고찰하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던 삼대 구연동화가와 삼대 구연동화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구연동화활동이 식민지 조선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Studies of establishment and propagation of Japanese storytelling activities

The history of Japanese storytelling was a uniquely developed children's culture of Japan, which was expanding with Imperialism. However, there has never been a thorough study of the subject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collecting such diverse information that was developed by spoken language and was rarely recorded in a written format.

In my paper, I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storytelling process; as it started and became established in Japan, with a look into the environment of that time. I will introduce the existence of three of the greatest storytellers/lecturers from that time period which have not been studied and discussed before. With this paper, I will bring clarity to the development of storytelling from its beginning and development in Japan and as it propagated into colonial Korea.